StarCraft II
Legacy of the Void™
BLIZZARD
ENTERTAINMENT

BLIZZARD ENTERTAINMENT

불로 끝나리라

로버트 브룩스

제 1 부

두 모선의 모든 선원에게 파멸이 엄습했다.

로하나와 자매들은 수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선원들과 같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강력한 감정이 혼돈을 뚫고 솟아올랐다. *절망. 충격.*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일 순 없어.* 선원들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울부짖었다. 그 감정은 로하나에게도 날카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중력은 끊임없이 그들을 죽음으로 끌어당겼다. 로하나는 이 또한 느꼈다.

모선의 불운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다. 핵심 동력원인 케이다린 수정이 깨지면서 모선 하나가 추진력을 상실했다. 아직 안전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함선은 중성자성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모선이 추락하는 모선에 견인선을 걸었다. 함장은 자기 함선의 추진력이면 두 척 모두 충분히 항성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생각은 옳았다. 두 모선은 함께 안전한 궤도에 올라섰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자부심. 흥분.* 팔천사백육십삼 명의 선원이 그런 감정으로 하나가 되어, 두 번째 모선의 재치와 용기를 칭송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 모선의 수정도 빛을 잃었다. *공포. 경악.* 케이다린 수정 두 개가 동시에 힘을 잃다니,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이 수정은 무한한 정밀함으로 세공되었다. 첫 번째 자손이 행성들 사이를 여행해 온 지난 수천 년 세월 동안 오직 하나만이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 이 순간 두 개가, 그것도 동시에 힘을 잃다니? 그것도 여기 이 쇠락해 가는 항성의 궤도 위에서?

칼라가 그런 감정과 그 이상의 것들을 전달했다. 대계승자들은 그것을 모두 목격했다.

"이와 같은 재앙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로하나가 말했다.

언니가 거기 동의했다. "둘도 없는 비극이지. 이 사고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 몫이야." 올라나가 이렇게 대꾸했다.

자매 중 막내인 샨티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사고라고? 누군가의 공작일 가능성이 커."

"두 함선에서?" 올라나가 물었다.

"바로 그거야. 확률을 고려해 봐. 한 번만 일어났다면 사고일 수 있어. 빠른 속도로 두 번 일어난다면, 의도적이라고 봐야지."

세 명 모두 말을 잃었다. 그들은 대계승자였다. 선원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 선원들의 감정이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자매들은 칼라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파문과 흐름을 살폈다. 선원들 중 누구에게서도 암울한 만족감을 찾을 수 없었다. 기쁨은 흔적도 없었다. 모선 위의 모든 영혼은 생존하려 발버둥쳤다. 누군가 공작을 했다면 다른 이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 터였다.

샨티라는 잠자코 증거를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렸다. "공작이 아니었어."

관성이 두 함선을 중성자성으로 이끌었다. *결의. 좌절.*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선원들은 몇 시간 동안 다급하게 허둥거렸다. 모두 헛된 일이었다. 중력엔 자비가 없었다. 함선의 방열막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선내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항성의 방사선을 가르는 함선의 날개가 빛났다. 곧 보호막이 붕괴되고, 선원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이다.

쇄도하는 새로운 감정들이 그들을 꿰뚫었다. 한 차원장인에서 시작된 그 감정은 들불처럼 칼라 전체로 번졌다. *공포. 절망.* 문제가 확인되었다. 사소한 일이었다. 비정상적인 고중력 환경에서 기동할 때 발생하는 초과 에너지가 모선의 날개들 사이로 방출되는 과정에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다. 그 파동이 함선 한 척의 수정에 영향을 주며 결국 수정이 파괴되었다. 두 번째 함선이 첫 번째에 견인선을 걸었을 때, 동일한 결함이 그 함선의 수정까지 파괴했다.

공작이 아니었다. 십억 분의 일 확률에 해당하는 사건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중성자성 궤도를 지나는 최악의 때 발생했다. 오직 그곳에서만, 그렇게 강력한 중력 함정이 도사린 그곳에서만, 이 결점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러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선원들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남지 않았다.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인근에는 어떤 프로토스 함선도 없었다. 제국의 차원망도 미지의 이 항성계까지 미치진 않았다. 별이 그들 모두를 삼킬 것이다.

화. 분노. 이런 감정이 선원들 사이에서 폭발했다. 모선에 탄 많은 이들은 전장에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꿈꿨었다. *이런 최후*는 아니었다. 사고에 의한 의미 없는 죽음이라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로하나가 물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군사학이지, 물리학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매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했다. 자매들도 이해했다.

샨티라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고, 계산을 돕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공중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 그녀는 손을 떨구며 말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어. 이제 탈출할 수 없어."

"이젠 불가능해." 올라나도 동의했다. 그녀는 두 함선 지휘관들의 감정을 추리는 중이었다. 모두 희망을 버렸다.

분노는 아주 짧았다.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프로토스는 끔찍한 스트레스 하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힌다. 자제력이 없다면 칼라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당면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명예와 전통을 버리지 않았다. 이내 선원들의 분노는 잦아들었고, 그 빈 자리에 무언가 나타났다.

"저거야." 로하나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녀와 자매들이 눈을 맞췄다. 다른 자매들도 그걸 느꼈다.

"최후의 감정." 올라나가 말했다.

자매들은 선원들보다 먼저 그걸 느꼈다. 그 감정의 씨앗은 칼라 깊은 곳, 대부분의 프로토스가 의식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감히 그곳에 가 보려고 시도하는 이조차 거의 없었다. 칼라는 위험하진 않았지만, 그 흐름은 강력했다. 심연에서라면 집중력과 균형을 한동안 유지하며 각각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강력한 정신을 가진 이들만이 가능했다. 계승자라도 대부분 실패하곤 했다.

그것이 세 자매가 대계승자인 이유였다.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감지한 것이 심연으로부터 부글거리며 올라와 한 순간에 두 모선 전체에 번졌다.

수용. 최후의 감정.

운명이 *이런* 최후를 제시했다면, 기꺼이 따르리라.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지만, 그건 이내 사라졌다. 최후의 감정이 모든 심장을 채우는 밀물이 되고, 칼라가 감정을 고양시켜 그들의 영혼을 하나가 되게 했다. 수천, 또 수천의 영혼이 한꺼번에 최후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리는 노래가 전 우주에 울려 퍼졌다.

이제는 로하나와 자매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어의 다른 이들도 이를 깨달았다. 수백만 명이 합류하고, 그들의 영혼이 결속을 맺었다. 머지않아 아이어의 모든 계급이 모선과 그 선원들과 하나가 되었다. 영광의 합창이 다른 행성으로, 다른 항성계로, 제국 전체로 퍼졌다.

파멸을 앞둔 선원들은 첫 번째 자손 모두의 눈이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걸 느꼈고, 그 황홀경에 몸을 맡기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더욱 높은 곳으로 고양되었다.

세 자매는 거기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 로하나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첫 번째 자손 최후의 울부짖음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건 없었다. 제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건...

여덟 세기 전 카르달라스 최후의 항전, 또 그로부터 두 세기 전 파라나이의 기습 전투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아니, 이후에도 분석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팔천사백육십삼 명의 프로토스가 곧 죽음을 맞으니, 그들의 기억이 보존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세 명의 대계승자는 그들의 죽음을 함께 경험할 것이다. 모두의 죽음을 하나하나 함께할 것이다.

"쉽지 않겠어." 올라나가 말했다.

로하나는 눈을 감았다. *올라나는 뭐든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지.* 이렇게 대규모로 생명이 소실되는 건 몇 세기만이었다. 그리고 전에는 망자의 기억 중 일부만 가까스로 보존할 수 있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우리라.

계승된 기억 중 하나가 그녀를 불렀다. 아이어의 산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폭풍을 견뎌 온 고대 부족이 있었다. 그 구성원들은 노출된 평원에서 나무도 뿌리째 뽑아 산산이 조각내는 바람을 이기는 방법을 체득했었다. 그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바람 앞에 몸을 구부려라. 바람이 널 타고 넘고, 네 주위를 돌아가게 하라."* 로하나가 부족장이 추종자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했다. 로하나의 말뿐 아니라 *부족장의* 말이 칼라를 지나 다른 대계승자들의 정신으로 전달되었다. *"바람이 널 부러뜨리지 않게 하라."*

로하나는 자매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둘 다 그녀의 충고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바닥에서 한 걸음 위로 올라선 원 위, 사이오닉 에너지의 부드러운 손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이제 셋은 손을 잡았다. 팔천사백육십삼 명의 개인들을 향해 정신을 열고, 나머지는 모두 닫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올라나가 자매들의 손을 꽉 잡았다. "온다."

선원들이 죽기 시작했다.

중성자성의 방사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차원장인들이 가장 먼저 죽었다. 죽음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과 싸우며, 마침내 죽음이 안식을 허락할 때까지 오래도록 칼라의 노래에 정신을 맡겼다. 차원장인들의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 그들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로하나와 올라나, 샨티라에게 이어졌다.

모두 영원까지 계승될 것이다.

다른 선원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두 함선의 모든 인원들이 함께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억에 담긴 강력한 힘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세 자매를 덮쳤다.

로하나는 그 격류에 정신이 휩쓸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송골송골 맺힌 땀이 등을 타고 흘러 내렸다. 자매들 중 한 명이 집중력을 잃으면, 나머지 둘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매가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버텼다. 모든 생애들이 로하나의 마음을 지나 흘렀다. 칼라의 영광의 노래와 수천 번 죽음의 고통이 로하나를 위아래로 흔들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삶을 붙잡았다.

그리고 바람 앞에 몸을 구부렸다. 그녀는 부러지지 않았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프로토스는 평생을 아이어에서 살았다... 이 프로토스는 자쿨 행성에서의 끔찍한 부상을 극복하고 화산 폭발에서도 탈출했다... 이 프로토스는 새로운 유형의 우주모함 발사 행렬을 만들어 내고 차원망을 새롭게 확장하는 일에 착수하는 중이었다...

불이 폭발하며 모든 생명을 단 한 순간에 앗아갔다.

그리고 각 영혼은, 마지막 하나까지 전부 계승되었다.

끝났다. 안도감은 마치 주먹처럼 세 자매를 강타했다. 올라나는 뒤로 넘어졌고, 두 발도 땅에 떨어졌다. 로하나와 샨티라는 언니를 단단히 붙잡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했다. 곧 올라나가 정신을 차리자 두 발도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다.

"고마워."

칼라 안에서는 노래가 계속되었다. 제국은 선원들의 *수용*을 느꼈다. 올라나, 로하나, 샨티라만 팔천사백육십삼 번의 죽음을 경험했다. 선원들이라도 오직 한 번만 경험해야 했을 죽음을.

세 자매는 함께 그렇게 남아 고통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다들 산 채로 불에 탔어." 로하나는 울고 있었다. 셋 모두 그랬다.

올라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

"첫 번째 자손은 그렇게 죽어선 안 돼."

"안 되지." 샨티라가 몸을 떨었다.

"우리에겐 그들의 기억이 있어. 거기서 배울 게 많을 거야." 로하나는 망설였다. 그 모든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자신들의 의무였다.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비극은 악의나 우둔함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야. 환경에 의한 거지. 이게 우리의 새로운 과제야. 우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을 방법을 제국에 알려줘야 해."

"모선의 결함은 고쳐질 거야. 거기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샨티라가 말했다.

"그래, 필요 없지. 그게 아니야." 로하나가 말했다.

올라나는 눈을 깜박였다. 로하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감춰진 결함이 강대한 것을 무너뜨렸지. 넌 *모든* 감춰진 결함에 대한 대책을 찾고 싶은 거구나."

"다음 번 예상할 수 없는 재앙에 쓰러지는 건 한두 척의 함선만이 아닐 수도 있어. 오늘은 탐험가들을 잃었지만, 다음 번엔 식민지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 전장으로 향하는 함대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봐. 아이어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올라나가 말했다.

"하지만 언니도 내 뜻을 알잖아."

샨티라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망설이고 있었다. "잠재적인 재앙을 *모두* 찾아내는 건 불가능해."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모든 발전에는 실수가 따르게 마련이야.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이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혁신을 억누른다면, 침체에 빠져 질식하게 될 수도 있어."

"모든 죽음을 막자는 게 아니야. 모든 죽음에는 교훈이 따라. 오늘의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죽음. 우리에겐 끝없는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을 살았던 모든 첫 번째 자손의 기억이 담겨 있어." 로하나가 말했다. "거기서 규칙을 찾아내겠어. 그런 과거의 삶들과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맹점을 찾아내겠어. 미래를 열린 눈으로 바라볼 거야. 우리 제국을 약하게 하는 게 뭔지 찾아내고, 그걸 바로잡을 거야."

자매들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운 감정들이 솟았다. 복합적인 감정들이 *결의*로 뭉쳤다. 그날의 비극이 가져온 고통 때문에 셋 모두 온몸이 욱신거렸다. 이런 고통은 그저 참아내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게 세 자매가 행동할 수 있게 내몰았다.

"그리하겠어." 올라나가 말했다.

샨티라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무작위의 확률을 적으로 대하자는 거네. 지금껏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이야.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어느새 그녀의 기분이 바뀌어, 으스스한 기쁨이 드러났다.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게 되겠지. 안 그래?"

제 2 부

제작하는 데도, 완벽하게 다듬는 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끝이 났다.

올라나는 선두에 서서 함선의 함교에 올랐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두 발이 땅에 내려왔고, 이제는 아예 두 다리로 달리고 있었다. 모선의 재앙이 있었던 그 순간 이래로 땅을 딛지 않은 지도 벌써 수많은 세기가 지나 있었다. "놀라워."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기분은 자매들의 것과 꼭 닮았다. 그리고 말 없이 머리 위로 두 팔을 들어 펼치며, 몸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 좀 봐.*

이게 첫 번째였다. 첫 번째 대함선.

"우린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게 되겠지." 샨티라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이름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원시 첫 번째 자손이 손으로 땅을 갈고 사냥감을 뒤쫓던 시절. 수천 년 전에 아이어의 바다로 항해해 간 이들은 바람과 파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단 몇 분 사이에 변화가 찾아오고, 작은 배는 폭풍을 견디지 못했다. 그 부족들은 더 큰 배를, 대함선을 건조했다. 검은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모두 함께 타고 떠날 수 있던, 바다 위를 떠도는 안식처였다.

또 그렇게 되리라. 로하나는 생각했다. 여기 이 새로운 대함선만 있으면, 프로토스는 어떠한 검은 바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영원까지도. 막강한 무장 때문만이 아니었다. 전례가 없던 기술적 진보 때문만도 아니었다...

선원을 모두 태운 대함선은 아무런 지원 없이도 홀로 전쟁을 치러낼 수 있었다. 정지장으로 가득한 그 거대한 선체 덕분에 식민지 전체, 아니 식민지와 전초기지로 가득한 항성계 전체의 인원을 태우고 대피할 수 있었다. 동력이 끊기더라도 수 세기 동안 유영하며 내내 선원들을 생존시킬 수 있었다. 대함선은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폭도 꼬리 부분에서는 수십여 킬로미터에 달했지만, 날렵하고 유연했다. 매일 정찰기를 한 중대씩 생산하고, 끝없는 우주전을 지휘하면서,민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차원 이동시킬 수 있었다. 모든 시스템은 중복하여 구성되었다. 대함선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닥칠 수 있는 모든 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단 하나의 절대적인 해결책으로서 구상되고 설계되었다. 대의회는 이러한 해결책에 담긴 지혜를 인지하고, 첫 번째 자손 제국의 모든 힘을 집중시켜 이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올라나의 기쁨은 계속해서 커지며, 칼라를 통해 고동쳤다. 그녀는 언제나 건축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네 말이 맞았어, 로하나. 난 벽이 성가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봐!" 함교의 벽은 형상을 띠게 빚어낸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투명했다. 함장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장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터였다. 그들 주위로 아이어의 불빛이 지평선까지 이어졌다. 머리 위에서는 하늘을 가득 채운 별이 빛났다. "경이롭구나."

역사 속, 수많은 전쟁들 중, 지휘관에게 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지식만 있었다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될까?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 현명한 지휘관은 부하들이 믿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다.* 칼라는 감정만을 전달했다. 경험이 부족한 전사는 전투 상황을 부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모두 우리 막내 덕이야. 내가 아니라." 로하나가 답했다. "얘가 없었다면, 차원장인들도 이걸 완성할 순 없었을 거야."

로하나는 샨티라의 조용한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 만족감.* 이 함선을 가능하게 한 기술은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칼라이 기술자들이 그녀보다는 기계공학에 더 능숙했지만, 샨티라에게는 수 세대에 걸친 장인들의 기억이 있어 그들을 이끌 수 있었고, 물리학에 대한 냉철한 이해로 그들의 생각에 도전했다. 대함선을 완성하기까지, 기술자의 생각은 모두 그녀를 통해야 했다. 샨티라가 그들의 영광을 이루어냈다.

대의회의 일원이 세 자매에게 다가왔다. 마도니스라는 이름의 심판관이었다. "출항식에 함께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물론이지요." 로하나가 말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계승자는 그걸 목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마도니스는 그들을 이끌고 함교에서 대함선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가 걷고, 자매들은 따랐다. 수 킬로미터의 통로를 지나자 핵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몇몇 제어판과 함께 정말로 거대한 구체가 압도적으로 솟아 있었다. 이곳 함선의 중심에서도 아이어 위로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별들도 눈길을 끌지 않았다. 대계승자도, 마도니스도, 대의회의 모두도, 일류 차원장인들도, 그들 가운데 서 있는 한 명의 전사도 거기 눈길을 주지 않았다.

별은 그저 먼 곳에 있었다.

새로운 별이 바로 여기서 태어나려 하고 있다.

마도니스가 그 전사에게 손짓하며 물었다. "아둔, 이 명예로운 일을 자네가 해 주겠나?"

아둔은 주먹을 가슴에 가져다 댔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그는 차원장인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중 한 명이 삐죽삐죽한 태양석 덩어리를 그에게 건넸다. 로하나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들은 그 폭발성 물질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다뤘다. 그녀는 그런 행동이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불러온 순간을 수십 가지나 떠올릴 수 있었다.

적어도 열여덟 척의 우주선이 태양석 폭발로 파괴되었어... 팔 세기 전에는 마을 전체가 재가 되었고...

샨티라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로하나는 그녀를 떨쳐 버렸다. 그녀의 손과, 칼라를 통해 자신을 다독이려는 마음까지 모두. "어리석은 짓이야." 로하나는 조용히 동생에게 말했다.

"태양석은 지나치게 무거운 압력이 가해질 때만 불안정해져." 샨티라가 답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다섯 번 중 한 번 정도랄까."

"별로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봐." 올라나의 두 눈에 웃음기가 서렸다. "저게 폭발하면, 우린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을 거야. 우아함을 잃지 않고 최후에 이를 수 있다고."

로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이미 나아진 후였다.

아둔은 물론 그런 명예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었다. 지금껏 활동했던 사령관 중에서 그처럼 지혜롭게 군사 전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로하나의 기분은 자매들과는 달랐다.

다른 자매들은 그를 존중하고 우러렀다. 로하나는 의심이 더 강했다. 사령관들의 지혜는 *지나칠 수도 있었다. 창의적인 지도자는 운이 다하면 죽는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창의적이었던 어느 함장이 자신의 함선으로 죽어가는 모선을 중성자성의 중력으로부터 끌어올리려 했던 적이 있었다. 놀라운 아이디어였지만, 감춰진 결함 때문에 모든 것이 붕괴되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불편했다. 이상했다. 해결책이 여기 있었다.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져야 마땅했다. 로하나는 감정을 잠시 물렸다. 불쾌한 의혹이 모든 이들에게 침투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둔은 태양석을 거대한 구체의 토대에 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태양석이 빛났다. 그리고 그 위로 거대한 구체가 빛났다. 커다란 쾅, 소리와 함께 태양 핵이 깨어나자 부드럽고 낮은 웅 소리가 주위를 가득 채웠다. 그 찬란한 빛과 열기를 껍질 안에 모두 가두는 건 불가능했다. 대함선이 전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함선이 상승하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아이어의 대기권을 벗어났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거대한 함선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그게 태양 핵의 힘이었다. 인공 항성. 그 에너지를 활용하면 이 함선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늠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명의 병사와 선원들이 이 안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대함선은 정말로 경이로웠다. 마도니스는 그 함선에 이름을 수여했다. *아둔의 창.*

출항식이 끝나자, 아둔은 다시 자신의 함대로 돌아갔다. 대의회는 뒤에 남아 대계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대의회 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모두 함교로 돌아왔을 때 마도니스가 말을 꺼냈다. 궤도에 올라서 있으니, 마치 아이어가 머리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대함선은 그대들이 바라던 것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렇지요? 예견할 수 없는 재앙을 막을 보루지요."

올라나가 자매들을 대표하여 당당하게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관님."

"우린 이미 추가로 두 척의 대함선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도니스가 물었다.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하나요?"

로하나가 눈을 깜빡였다. *놀람. 혼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도니스가 설명했다. 대함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믿기 힘들 만큼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다. 그 부담이 너무 큰 까닭에 새로운 항성계를 식민지화하는 등 다른 주요 과제가 지연될 정도였다. "*아둔의 창*은 그 자체로도 우리와 동등한 적과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우리와 동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손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은 없지요. 내년에도, 다음 세기에도 없을 겁니다." 로하나는 수 세대 전의 기억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가지 선택이 칼라를 통해 마도니스에게 전해지게 하여 그가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더 큰 힘을 위협하는 건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공격입니다. 집행관님도 말씀하셨듯, *아둔의 창*은 재앙을 막을 보루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곳에 있을 순 없습니다. 대함선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더 안전해집니다. 세 척이면 좋습니다. 더 많아지면 더 좋을 테지요."

로하나는 자매들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돌아서서 자매들을 바라봤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야?"

샨티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언니는 지금 천 년 후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들은 지금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 자원 고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 부으면..."

"우리 제국에는 자원이 충분해."

"오늘은 그렇겠지. 내년에도, 다음 세기에도 그렇겠지." 샨티라의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그 말에 담긴 비난이 조금 덜 아팠다. 그래도 큰 소용은 없었다. "언젠가 그렇지 못한 때가 오면, 대함선으로 이루어진 함대도 우릴 구하진 못할 거야. 우린 자원을 공급할 식민지가 필요해. 화력은 한계가 있어. 우리 차원망도 마찬가지고. 식민지가 늘어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왔을 때 도피할 곳도 더 늘어나는 거야."

올라나가 한 손을 들었다.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대의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물러나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녀는 마도니스에게 경고했다.

심판관도 이에 동의하는 몸짓을 보였다. "우리 제국은 큰 무리 없이 두 척의 대함선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 그대들의 지도를 구하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올라나가 말했다.

"네." 로하나도 그에 동의했다. 작은 의혹이, 그 걱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 일이 필요할 것 같았다.

제 3 부

오랜 세월이 흘렀다. 대계승자들은 기억을 헤집었다. 대함선의 문제는 아주 미묘한 것이었다. 역사 속 어떠한 순간도 홀로 그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다시 경험했다. 재앙을, 발견을 다시 되짚었다. 자신들의 길을 밝힐 것이라면 모두 살폈다.

처음에 로하나는 첫 번째 자손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대함선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렇다면 한 척의 대함선이 완파된다고 해도 프로토스의 생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나 이제는 그녀도 확신하지 못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자원을 마구 낭비한 끝에,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기억이 너무 많았다.

물론 실질적인 문제도 있었다.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아둔의 창*은 전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로지 식민지 거주민들을 새 행성까지 호위하는 일이 전부였다. 대함선은 그런 용도에서는 놀랄 만큼 유용했다. 그런데 싸워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어째서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까? 세 척의 대함선이면 충분할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을지도 몰랐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나 다른 자매들을 압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계승자였다.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 있었다. 계승해야 할 기억이 있었다.

주어야 할 조언이 있었다.

***

올라나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대의 계획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게다가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말 겁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식민지 지도자는 커다랗게 팔을 휘저으며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결의. 고집.*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 위험한 감정의 조합이었다. "그 행성의 기온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1.3 도로 측정되었다고요."

절대 영도 위로 1.3 도라는 말이었다. 텅 빈 우주 공간도 그렇게 춥진 않다.

"장비는 망가지고, 그대는 얼어붙을 겁니다." 올라나가 말했다. "그러지 않더라도, 그대는 이른 죽음을 맞을 운명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녀는 기억 하나를 꺼냈고, 칼라를 통해 식민지 지도자도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했다.

... 그 위대한 탐험가는 아이어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처음으로 오르고, 아이어의 바다를 처음으로 항해했다. 그의 안에는 미지의 것을 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었다. 그는 항상 혼자서만 모험을 떠났다. 고집이었다. 언젠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위험에 맞닥뜨릴 것임을 알았기에, 다른 누군가를 자신과 같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평이한 봉우리'의 동굴 속에서 최후를 맞았다. 지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바위를 쏟아내려 그를 산 채로 덮쳤고, 그의 생명은 단 한 순간에 꺼졌다...

"그대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나가 말했다. "그대는 점점 더 큰 위험을 찾아갈 겁입니다. 그건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자손은 그대와 같은 정신을 지닌 이들을 총애합니다. 극한을 시험하며, 그대는 온 제국에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대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몇 개의 기억을 다시 칼라에 보냈다. 미지의 곳을 탐험하다가 죽은 다른 탐험가들의 기억이었다.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행성으로 가십시오. 그대의 추종자들은 안전한 궤도에서 그대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십시오. 그들이 그대와 같은 위험을 짊어지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대가 묻는다면 그들은 자부심과 외경심 때문에 그대의 뒤를 따르겠지요.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식민지 지도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단념하지 않았다. "모든 죽음이 전투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계승자님. 제 최후가 개척지에서 찾아온다면 그리해도 됩니다. 제 추종자들도 제 믿음을 공유합니다."

올라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가요? 가까이에서 그들이 느껴집니다. 모두 그대의 소신을 존경하지만, 그걸 공유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대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대 곁에서 마주해야 하는 위험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민지 지도자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대의 조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라나는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또 그가 조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았다. 원한다면 그녀의 조언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 년 후, 올라나는 열여덟 개의 영혼이 원정을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 황폐하고 얼어붙은 떠돌이 행성에 착륙했고, 십이일 후, 장비가 망가졌다.

그녀는 크나큰 슬픔과 함께 그들의 기억도 보존했다.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이야기였다.

"항상 바보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지." 올라나는 자매들을 보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이끌 준비가 된 바보들이 있고."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

기사단의 훈련 대장이 그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정신과 감정이 온통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전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모두 파멸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전사가 되는 과정의 가혹한 훈련은, 프로토스 사이에서 수없이 오랜 세대에 걸쳐 신성시되어 왔다. 기사단의 일원은 어린 시절부터 전투 소질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정신적 학습에 소질이 있는

이들은 고위 기사의 가르침을 받아 사이오닉 전투 훈련을 받는다. 육체적 재능이 있는 이들은 검을 활용하고 전장에서 검무를 추는 법을 배운다.

이제는 이런 두 가지 계열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광전사도 조금 더 정신적인 형태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고위 기사도 격투술을 더 익히고 전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젠가 둘 사이의 차이점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육체적 훈련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한 가지만 남게 될 수도 있다.

훈련 대장은 그 생각에 반대했다. 하지만 철학자들과 젊은 영재들과 수십 년에 걸쳐 논의한 결과, 그의 의지가 약해졌다. "다른 전쟁에는 다른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는 애처롭게 말했다. "제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전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릇되게 그리한다면 우리 전사들을 퇴화시킬 뿐입니다. 제 제자들은 미래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세 자매가 모두 이 대화에 참여했고, 셋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위대한 대장이시여," 로하나가 말했다.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로하나는 그에게 하나가 아닌 수십여 개의 기억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전투. 전투에 탁월한 광전사들. 한 순간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고위 기사. "저들이 움직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저들의 집중력을 보십시오. 모두 자신들의 재능에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기술을 배우려 발버둥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능과 타고난 소질에 따라 실력을 날카롭게 갈고닦고, 올바른 분노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대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쟁에는 새로운 전술이 도입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에 적응할 수 있는 건 고도로 훈련된 전사들뿐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아는 자만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라나가 덧붙였다. "우리, 즉 첫 번째 자손은 건물이 토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통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붕괴를 예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고대 철학자의 격언이 정신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그 기억을 모두와 공유하며 낭송했다. *"나무를 쓰러뜨리는 건 바람이 아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썩은 뿌리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훈련 대장의 침울한 기색은 사라졌다. 안도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감사합니다, 대계승자여."

로하나는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철학의 도전을 받았지만,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전통을 따르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자손은 모두 그의 예를 배워야 해." 그녀가 자매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그처럼 프로토스의 토대를 지키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존재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프로토스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

샨티라는 십여 명의 차원장인과 한 달이 넘게 소통했다. 그들은 그녀 앞에 앉아 과거의 일류 차원장인들의 끝없는 기억에 푹 빠진 채 연구에 몰두했다. 해결해야 할 큰 위기가 닥친 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배우기를 좋아했을 뿐이다. 그리고 샨티라는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로하나와 올라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차원장인들이 떠난 후, 샨티라는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저들이 대함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연히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분명히 자매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은 청원하러 온 이들을 뒤로 하고 외딴 곳으로 물러났다. "얘기해 줘, 동생. 우리가 들어 볼게." 로하나가 말했다.

샨티라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좌절한 기색이 역력했다. "답은 거기 있어. 분명해. 왜 그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녀는 절망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자매들을 바라봤다. "답을 얻었었어. 지금은 잃어버렸고.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시작해 보렴." 올라나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찾아 보자."

차원장인들은 칼라이 계급의 전설적인 발명가들의 기억에 이끌렸다. 비범한 정신이 관습적인 지혜에 도전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직 살아 있는 한 차원장인이 모선의 고속 순간이동 장치를 개발했다. 이 독특한 기술을 토대로 모선은 주위의 병력을 안전한 곳으로 '대규모 귀환'할 수 있었으며, 치명적인 상황에서 즉시 탈출이 가능하게 했다. 이 기술만으로도 거의 천백 년 전에 모선 두 척을 앗아갔던 비극이 되풀이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다.

샨티라가 설명을 멈췄다. 침묵이 이어졌다. 막내의 좌절감이 다시 차올랐다. "여기야. 여기 뭔가 있어. 칼라를 떠돌며 유영해 봤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어째서 그 답이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거지?"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모선 두 척이 파괴된 건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 그렇게 많은 기억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야." 올라나가 동생을 달랬다.

"그게 아니야." 샨티라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마치 칼라 안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이,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느낌이야."

셋 모두 그런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진실은 어디에 있어, 샨티라? 모선의 선원들의 기억이야? 아니면 그 이전의 과거야?" 로하나가 물었다.

"더 예전이야. 아주 오래전." 그녀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카스. 그거야. 위대한 카스."

프로토스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카스, 전쟁 중이던 부족들을 칼라를 통해 연결시켜 하나로 통합한 존재. 그가 없었다면, 종족 자체가 내전에 휘말려 소멸되었을 것이다. "왜 차원장인들이 카스의 기억을 살폈지?" 올라나가 물었다.

"그는 비범한 정신이 최초로, 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례이니까." 샨티라가 답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선택지를 찾아냈어. 우리 감정을 통합했지. 그와 같은 선견지명이 우리가 위대한 발견을 하고 우주로 진출할 수 있게 한 속성이야." 그녀의 좌절감이 흔들리다가 슬며시 사라졌다. "이게 답이야. 우린 비극을 막기 위해 대함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지. 하지만 대함선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카스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카스는 내전을 *막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야만성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게 한 거야."

올라나의 감정이 차갑게 식었다. "항상 바보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지."

로하나가 언니를 향해 빙글 돌아섰다. "카스를 바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

"아냐."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던 유일한 이였어. 아주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던 생각이 있어. 간단한 개념이야. 우리, 첫 번째 자손은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데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 올라나는 손을 저어 그에 대한 대답을 막았다. 대단한 발견은 아니었다. 프로토스가 실수를 할 수 없다면, 대계승자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카스를 언급했을 때, 난 오직 그가 맞서야만 했던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전쟁,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착각한 바보들이 시작한 전쟁. 그들은 전쟁의 이유가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학살의 장으로 이끌었지. 진실을 보려면 극단적인 관점이 필요했고, 칼라는 우리를 통합하여 바보라도 그걸 깨뜨릴 수 없게 했어. 네 말이 옳아, 샨티라. 우린 대함선 문제에 잘못된 형태로 접근했던 거야."

샨티라는 물러섰다. 그 논리에 비약이 있음을 느낀 게 분명했다. "지금 시대에 내전은 불가능해. 하지만 대함선이 엮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만 해도 몸이 떨려 와."

정말로 끔찍한 생각이었다. "올라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지?" 로하나가 물었다.

올라나의 감정 속에 확신이 스며들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동족의 인식에 대한 확신이었다. "첫 번째 자손이 다시 분열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수 세기에 걸쳐 우린 걱정스러운 일들을 많이 봤잖아? 우린 대함선을 작은 결함에 대한 보루로 생각해 온 거야."

"모선의 재앙." 샨티라가 말했다.

"그래. *그게* 우리가 두려워한 거야. 작은 결함이 강대한 것을 파괴하는 일. 하지만 끝없는 전쟁은 작은 결함의 결과가 아니야. 그건 끝없이 반복된 하찮은 갈등으로부터 태어났어. 젤나가조차 그것 때문에 우릴 버렸지."

로하나도 올라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깨닫고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 *나무를 쓰러뜨리는 건 바람이 아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썩은 뿌리다.* 그녀는 그런 암시에 맞서 저항했다. 그래야만 했다. "프로토스는 이미 그 단계를 초월했어, 올라나. 칼라와 전통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런 오만의 함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해."

갑자기 샨티라에게서 공포가 퍼져 나왔다. "아냐, 로하나. 단순히 불가능하진 않아. 확실해."

"뭐라고?"

"어느 한 순간, 우린 흔들릴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그건 수학적인 사실이야." 샨티라가 말했다. 우린 영원까지 계속되는 프로토스 제국을 꿈꾸지만, 감춰진 결함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린 개별적인 재앙의 결과에 대응하는 법만을 고려해 왔어. 첫 번째 자손이 멸종을 맞는 그 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았어. 우리에게서 비롯될 수도, 적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방 안에는 오랜 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자매는 각각 서로의 감정이 공포와 의혹으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올라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함선. 그게 해결책이야."

"난 잘 모르겠어." 샨티라가 말했다.

"하나의 대함선만 살아남으면 돼." 올라나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우리 문명이 모든 것을 견뎌낼 거야. 첫 번째 자손의 행성이 모두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대함선은 우리가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을 때까지 별들 사이를 떠다닐 거야. 우린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하진 않았지만, 대함선은 능히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겠지." 샨티라가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로하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과 싸웠다. *결의. 좌절.* 종말을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려니 분노가 치솟았다.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운명일 순 없어.*

한 가지 깨달음이 닥쳐와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건 모선의 선원들이 생각했던 거잖아.*

새로운 감정, *절망*이 해일처럼 그녀에게 밀려들자, 자매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로하나?" 올라나가 나직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잠깐만." 로하나가 답했다. "잠깐만 기다려 줘."

그들은 기다렸다. 로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싸웠다. 그런 감정이 자기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분노하게 내버려 뒀다. 자매들은 거기에, 또 칼라 안에 그녀와 함께 머물며, 감정의 격류 안에서 연민이라는 닻을 내리고 머물렀다. 로하나는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다. 끔찍한, 너무나도 끔찍한 해결책이 방금 떠올랐고, 말로써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책임이 될 것만 같았다. *분노. 거부.* 다른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로하나는 입을 열었다. "우린 대함선을 너무 일찍 만들었어."

자매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설명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자매들도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그걸 공유해야만 한다는 것이 로하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로하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언니 말이 맞아. 대함선 한 척이면 최후의 시간에 우리 종족이 살아남는 데 충분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대함선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도, 남는 대함선은 없을 거야. 최후가 다가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어? 우린 대함선을 보낼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대함선을 보내서 직접 대항하게 할 거라고." 로하나는 칼라를 통해 과거 삶의 단편들을 자매들에게 보냈다. 자부심 가득한 전사들이 모두 용기 있게 죽음을 마주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모두 이길 수 없는 적에게 다가가면서도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런 자긍심은 프로토스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저주였다. "첫 번째 자손은 달아나지 않아. 절대로. 패배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함장들의 가슴 속에 들어갈 때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일 테니까, 결국 모든 대함선이 낭비될 거야." *중력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고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그리고 대함선이 불탈 때면 우리 종족의 희망 역시 불타버릴 거야. 우리 문명, 우리 제국, 우리 백성들까지, 모두 불로 끝날 거야."

샨티라와 올라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로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보존한 기억들을 살피고 있음을, 자신의 말을 반박할 생각을 찾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성공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프로토스는 승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죽음에서 영광을 찾았다. 첫 번째 자손 전사들은 완전한 믿음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정말 꺾을 수 없는 적이 나타났을 때 대함선으로 후퇴한다는 생각은, 비록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해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로하나, 나도 네 고통을 알겠어." 올라나가 말했다. "네 마음엔 해결책이 담겨 있고, 그게 아픔을 주는 거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로하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우리 모든 조상님들을 우러러, 우리가 갈라지지 않는 다른 길을 찾아냈으면 좋겠어."

날카로운 경악이 칼라를 지나, 마치 주먹처럼 로하나를 때렸다. "무엇이 우릴 갈라 놓겠어?" 올라나가 물었다.

로하나가 답했다.

그녀의 추론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와 숙고에는 며칠이 걸렸다. 마침내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다. 최후의 감정이었다.

수용.

제 4 부

대의회는 잔뜩 들떠 있었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대함선 문제에 대한 답을 듣게 된 건 축복과도 같았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서는 대계승자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엄숙했다. 그 기분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자매들은 자신들의 추론을 설명했다. 다른 이들의 생생한 기억과 함께.

"단순한 수학과 확률 문제입니다." 샨티라가 결론을 내렸다. "언젠가 대함선이 아니라 그 무엇도 멸종을 막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의회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격. 마비. 처음 느꼈던 감정, 즉 거부, 고집은 셀 수 없이 많은 계승된 기억들의 무게에 눌려 녹아 내렸다. 한참이 지난 후 마도니스가 답했다. "당신들을 파멸의 예언자라 부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의 우리는 말 그대로 그런 존재입니다." 올라나가 차분히 말했다.

로하나는 갑자기 밀려드는 즐거움을 애써 억눌러야 했다. 그 감정은 지금 이 논의의 분위기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대함선은 강대합니다. 어째서 실패할 거란 말씀이십니까?" 마도니스가 물었다.

"대함선은 낭비될 것입니다." 로하나가 말했다. "우린 생존 가능한 비극까지도 막아내려고 이들을 사용할 겁니다. 탐험 과정에서 일천 대의 모선을 잃더라도 우리 종족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천 개의 식민지를 잃더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그대가 적시했듯, 이들 대함선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세 척이 있나요? 좋습니다. 우린 이들을 계승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의회의 구성원들은 로하나의 말 속에서 '*계승*'에 주목했다. 모두가 그 뜻을 이해했다. 지금 세 명의 대계승자가 자신들의 앞에 서 있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군요." 마도니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함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계승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로하나가 말했다. "*아둔의 창*은 식민지 거주민들을 인도할 함선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의 남은 전통을 보존하고, 우리의 최후를 획책하는 상대에게 반격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도니스가 물었다.

"대함선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접근은 가능해야 하고요. 필요해지기 전까진 출항해서도 안 됩니다." 로하나가 말했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나은 겁니다. 대함선은 별들을 향해 출항시킬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신중하게 묻혀야 합니다."

장로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그 일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 수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반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세 자매도 그 모든 논의에 참석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대의회도 대계승자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암흑의 날에는 대규모 부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린 수천 명의 병사들을 정지장에 담아 이 함선에 승선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 기사 사령관이 말했다. 그 문제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로하나가 말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녀의 말에 대의회는 침묵에 빠졌다. 칼라는 경악으로 전율했다.

임계점을 지났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대함선은 세 척 있습니다." 올라나가 설명했다. "우리도 세 명입니다."

"최후의 시간이 오면, 조언과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샨티라가 말했다.

"그리고..." 로하나가 덧붙였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유산을 계승해야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심판관이 일어서서 꿰뚫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후의 시간이 오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이 될 겁니다. 모든 대함선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세 분 모두가 깨어나시진 않을 겁니다."

올라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그러진 못할 겁니다."

"그래도 바뀌는 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로하나가 말했다.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린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

대함선 세 척은 모두 아이어에 묻혔다. 기념비적인 작업이었다.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구덩이를 파내려 가는 시도는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이었다.

아이어에 흩어져 있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도시에서, 땅 아래 거대한 발사대가 건축되었다. 재앙이 발생할 경우, 대함선은 신속하게 이 행성을 떠날 것이다.

정지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데도 여러 해가 걸렸다. 대계승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다른 계승자들에게 맡기며, 그들 중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억도 소실되지 않게 했다. 자매들은 그 기간 동안 거의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대함선의 동력은 꺼지고, 태양핵의 빛이 잦아들고, 정지장 보관소의 통로를 따라 아주 미약한 에너지만이 흘렀다.

샨티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알타리스의 긍지*에 올랐다. *침착함. 결의. 수용.* "우리가 깨어날 때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야." 그녀는 이 말을 남겼고, 한 시간 후 정지 상태가 되어 칼라에서 사라졌다.

동생이 사라지자, 마치 샨티라가 죽기라도 한 듯 로하나의 심장이 찢어졌다. 올라나도 같은 기분을 느꼈다. "우린 그녀의 기억을 계승할 기회도 갖지 못했구나." 그녀는 슬픔에 잠겨 말했다.

하루가 지나고, 올라나는 *네진의 기억*에 올랐다. 그녀는 발로 땅을 딛고 함선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안녕, 동생."

"안녕." 로하나는 미동도 않고 서서, 올라나가 정지장에 들어갈 때까지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칼라를 향해 말없이 울부짖었다.

그녀의 고통이 고요한 아이어를 꿰뚫고,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대부분 그녀가 우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연민의 물결이 그녀를 향해 밀려왔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계승자는 과거를 연구했다. 미래는 그저 추측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로하나는 자신만이 깨어나고 자매들은 깨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사로잡힌 걸까?

그녀는 조상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주기만을 바라며 애원했다. *날 죽게 해 주세요. 자매들이 아니라.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어서 정지 상태로 돌입하여 그곳에서 평온한 잠을 찾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거부했다. 로하나는 고통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다.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흉터 하나하나가 자매들과 함께 공유한 결속의 증거가 되리라.

언젠가 그녀가 깨어난다면, 그건 세상이 최후를 맞는 때일 것이다. 준비된 상태여야 했다. 마음은 단호하고, 목표는 명확할 것이다.

고통이 잦아들자, 오직 최후의 감정만이 남았다. *수용.*

그녀는 홀로 *아둔의 창*으로 향했다. 고요했다. 그녀가 깨어날 때엔, 그런 날이 온다면, 다시 이런 때가 오지는 않으리라. 로하나는 함선 내부를 조용히 누볐다. 그녀는 전쟁 의회실에 잠시 머물렀다. *여기가 될 거야.* 여기서 사령관과 함께 동족을 소멸로부터 구해낼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로하나는 전쟁 의회를 떠나 정지장실에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들어 있는 수만 개의 정지장 장치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 오랜 잠에 자원한 이는 끝이 없었다. 첫 번째 자손을 지키는 최후의 병력이 된다고? 재앙을 막을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된다고? 너무나 많은 광전사들이 이런 기회를 꿈꿨다.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던 그 기사단 훈련 대장도 자원했고, 마지막 나날에 전사들이 제대로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돕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로하나는 정지장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부드럽고 시원한 안개가 정지장 안을 가득 채웠고, 로하나의 정신은 아득히 멀어져 갔다. 자신이 깨어날 때 누가 프로토스를 지휘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들이 그런 어려운 과제에 맞설 능력이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안녕, 자매들.